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마이크론 급등, 애플은 급락..미국증시 혼조 마감

- 미국 증시 혼조 마감: 다우+0.35%, 나스닥 -0.43%
- 메모리 가격 상승..마이크론은 웃고 애플·MS는 울고
- 성장, 물가, 고용 지표 대체로 양호

Summary

미국증시 순환매 속 지수별 혼조 마감

6월 25일(현지 시각) 미국 증시는 업종별 순환매 양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체로 양호한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지수별로 혼조 마감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호실적은 메모리/스토리지 종목 강세 재료였지만 메모리 부족과 그로 인한 가격 상승이 야기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일부 제품 가격 인상 이슈는 관련주를 중심으로 주가를 짓누른 요인이 됨. 양호한 경제 지표, 다소 안정된 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는 시장 내 순환매 흐름에 힘을 보탬.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0.14% 상승한 51,920.62에 거래를 마쳤고 S&P500 지수는 0.01% 하락한 7,357.49에 마감. 나스닥 지수는 0.46% 하락한 25,358.60에 거래를 마쳤으며 나스닥 100 지수는 0.75% 상승한 29,440.323에 거래를 마침. 중소형주 지수 러셀2000은 0.71% 상승한 3,007.858에 마감. 시카고 옵션 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 VIX는 2.63% 상승한 19.12를 기록.

(다우 +0.14%, 나스닥 -0.46%, S&P500 -0.01%, 러셀2000 +0.71%)

메모리 가격 상승..애플·MS “제품 가격 인상 불가피”

이날 시장의 눈길은 전일 마감 이후 깜짝 실적으로 발표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제품 가격 인상을 발표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기술주에 쏠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AI 메모리 수요에 대한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발표한 전분기(회계연도 기준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를 크게 웃돌아 메모리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한 시장 일각의 우려를 잠재웠음. 마이크론은 전분기 매출이 1년 전에 비해 350% 급증한 414억 6,000만 달러로 집계됐으며 순이익은 282억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약 1,400% 늘었다고 밝힘. 모두 시장 예상을 웃도는 것이며 현재 진행 분기 매출 전망은 500억 달러로 제시해 이 역시 시장 예상치를 웃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와 함께 하이퍼스케일러를 포함한 16개 고객사와 체결한 전략적 고객 계약(SCA)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는데 이는 2030년까지 5년간 총 1,000억 달러 규모의 메모리 구매를 이들 고객사가 보장한다는 내용이며 이 SCA 규모는 디램 출하량의 약 20%, 낸드 출하량의 33%에 이른다고 회사는 설명함. 수요가 공급 대비 월등히 많아 공급사가 계약의 주도권을 쥐고 흔드는 구조는 메모리 업체에는 긍정적이거나 반대로 이 메모리를 사야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요인이기도 함. 때문에 관건은 수요사가 견딜 수 있는 가격 수준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부분일텐데 이는 결국 소비자 가격에 부품 가격 상승을 얼마나 전가해야 최종 소비자 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도

달아있음. 관련해 이날 나온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 가격 인상과 그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의미가 적지 않았음.

애플은 소비자 전자제품 산업이 현재 이전에 없던 도전에 직면했다며 AI 데이터센터의 급격한 확장이 메모리와 저장장치 수요를 이례적으로 폭증시켰고 이로 인한 부품 가격 상승은 전례 없는 속도와 강도라고 밝힘. 이에 여러 제품에 대한 가격 인상을 시작해야만 하는 지점에 도달했다며 맥북과 아이패드 가격을 각각 20% 가량 인상한다고 밝힘.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엑스박스 콘솔 가격을 오는 8월부터 최대 150달러 인상한다고 밝혔는데 회사는 “콘솔용 저장장치와 메모리 가격이 2.5배 넘게 올랐고, 2027년 가을까지 다시 두 배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이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부품가격 인상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소비자 가격 인상에 따른 수요 위축 우려를 양방향으로 반영해 약세를 보임.

성장, 물가, 고용 지표

이날은 성장, 물가, 그리고 고용 관련 지표들이 잇따라 공개됨.

먼저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GDP) 증가율 확정치는 전기 대비 연율 2.1%로 집계돼 앞서 발표된 속보치 1.6%와 시장 전망치 1.6%를 모두 크게 웃뽀. 직전 분기에 비해서는 0.5% 성장한 것. 세부 항목별로 민간 투자가 성장률을 1.35%p 끌어올려 가장 크게 기여했고 정부 지출과 민간 소비가 각각 그 뒤를 이었음.

이날 공개된 지표 중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건 미국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로 알려져 있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미 상무부가 집계한 미국의 5월 근원 PCE 가격지수는 전달 대비 0.3% 상승해 전월비 상승률은 전달과 동일했고 시장 예상치에 부합.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3.4% 상승해 직전달 3.3%에 비해 0.1%p 상승했지만 역시 시장 예상에는 부합함.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가격 지수가 아닌 전품목 가격 지수는 4%대로 여전히 전반적 물가 수준은 높은 상황임. 다만 그럼에도 시장이 앞서 반영해왔던 예상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아 금리와 달러 추가 상승 요인이 되지는 않았음.

물가 지표 발표 이후 다수의 연준 위원들이 물가와 금리 경로에 대한 시각을 일부 드러냈는데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연준의 양대 책무인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 중 지 금 문제는 물가 쪽”이라며 물론 서비스 물가에서 약간의 개선이 보이고 유가가 고점 대비 큰 폭 하락하는 등 긍정적인 면모가 일부 보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서비스 물가가 높아 물가 둔화를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음.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비교적 낙관적인 시각을 드러냈는데 그는 “물가 안정이라는 연준의 책무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은 목표치 2%에 비해 의심의 여지없이 높은 수준이지만 현재 통화정책 기조는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으로 되돌리는데 적절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

매주 목요일 발표되는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전주 대비 12,000건 감소한 215,000건으로 집계돼 2주째 감소하며 4주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고, 시장 예상치였던 225,000건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을 보임. 전주와 마찬가지로 일주일 이상 연속으로 실업 보증을 청구한, 연속 실업보험 청구건수는 증가해 재고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는 않음을 또 다시 확인했지만 그렇다고 해고가 크게 늘고 있지도 않고 있음, 그러니까 노동 시장이

비교적 안정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였음.

특징종목

메모리 공급 부족

마이크론 테크놀로지(+15.74%) 실적 발표와 애플(-6.12%), 마이크로소프트(-3.46%) 등의 발표로 메모리 공급 부족이 기술 업종 내 주요 화두로 떠오름. 애플은 이날 AI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메모리와 스토리지에 대한 수요 폭증은 전례 없는 속도와 강도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자사의 가격 인상 결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밝힘. 맥과 아이패드 가격 인상을 발표한 애플은 수요 감소와 수익성 둔화 우려에 하락.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서버용 메모리와 스토리지 비용이 2.5배 이상 상승해 8월부터 엑스박스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밝힘.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추가 가격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음. AI 데이터센터 확대 붐으로 인한 HBM 수요 급증과 고수익 HBM 생산에 쏠린 메모리 업체들의 캐파는 결국 범용 메모리와 스토리지 부족으로 이어져 이들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범용 메모리 가격의 상승은 결국 HBM 가격까지 밀어올리는 가격 상승 측면에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음.

전일 발표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15.74%)의 실적은 이 같은 상황을 고스란히 반영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전분기 실적이 매출, EPS, 마진 모든 면에서 시장 예상보다 강력했을 뿐 아니라 향후 가이던스도 기대 이상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함. 강력한 실적 성장 전망의 기저에는 우호적인 장기 공급 계약 컨디션들이 뒷받침되고 있으며 때문에 강력한 실적 성장이 꽤 오랜 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 심리를 자극.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는 현재 1,200달러 수준이며 RBC캐피털은 1,200달러였던 목표가를 1,500달러로, 키뱅크는 600달러였던 목표가를 1,600달러로 상향함. 이외 JP모건과 TD코웬, 웰스파고, 씨티 등의 목표가 상향이 이어짐. 이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급등하며 장 중 한 때 메타 플랫폼스(-2.65%)의 시가총액을 앞지르기도 했음. 마이크론 이외 샌디스크(+21.97%)와 웨스턴 디지털(+4.91%), 시게이트(+3.23%) 등 메모리/스토리지 관련주가 동반 상승.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보니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움직임 안에서의 수혜주에 대한 관심도 지속됨.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13.44%)는 DRAM과 HBM, 첨단 패키징 및 AI 칩 생산을 위한 신규 장비를 공개한 가운데 급등, 신고가를 경신함. 이외 KLA(+7.70%), 램 리서치(+7.23%) 등도 동반 강세.

퀄컴(+3.79%)은 이날 회계연도 2029년까지 산업, 로봇 부문 매출 80억 달러, 개인 AI와 컴퓨팅 매출 60억 달러 목표를 제시했으며 모건스탠리는 퀄컴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축소에서 중립으로 상향하고 목표주가를 146달러에서 231달러로 상향함. 모건스탠리는 퀄컴이 제시한 2027 회계연도 데이터센터 매출 가이던스 50억 달러에 대해 이는 퀄컴을 데이터센터 수혜 기업 리스트에 포함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판단하며 AI 시장 확대에 따른 낙관론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점을 투자 의견과 목표가 상향의 근거로 제시함. 다만 제품 로드맵에 대한 모든 의견이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임.

순환매: 산업재, 경기 민감재, 중소형주

애플(-6.12%)과 구글 알파벳A(-0.46%), 메타 플랫폼스(-2.65%) 등 빅테크의 AI 관련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는 양상으로 빅테크는 대체로 약세. 아마존닷컴(-3.10%)은 인도의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 인프라에 13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한다고 밝혔으며 낙폭 줄이지 못하고 마감. 테슬라(-0.11%)는 베를린 기가 팩토리의 생산 확대 계획을 추가하고 생산 확대와 함께 신규 직원 채용 계획도 밝혔지만 약보합에 머무름. 이날 유럽연합 반독점 규제당국은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빅테크 규제의 핵심인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혀 이 역시 관련주에 부담으로 반영됨.

다만 러셀2000이 강세를 이어가는 등 중소형주의 상대적 강세 양상이 유지되고 있음. 업종으로도 산업재와 경기 민감 업종으로의 자금 이동이 지속되고 있음. 산업재, 운송주, 주택 건설주, 헬스케어, 유틸리티와, 원자재, 그리고 금융주 등이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유지함. 캐터필러(+6.29%)가 이날 상승으로 신고가를 경신했고 이외 GE베르노바(+2.63%), 디어(+5.00%) 등이 산업재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컸음. 산업재 셀터에 속하는 항공주도 전일에 이어 추가 상승는데 델타 에어라인스(+1.61%)가 신고가를 경신했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3.11%)도 신고가를 경신했음.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2.26%)도 동반 상승.

헬스케어 업종에서는 CVS 헬스(+2.74%)가 신고가를 경신했으며 이외 유나이티드 헬스(+2.40%), 휴마나(+3.97%), 애브비(+3.51%), 머크(+4.02%) 등도 상승세. 머크는 이날 미국의 라이프 사이언스 도구 및 분석 기술 전문 기업 바이오 테크네(+20.08%)를 주당 73달러 현금으로 총 약 113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일라이 릴리(+0.93%)는 메디케어 가입자를 위한 메디케어 GLP-1 브릿지 프로그램을 출시했다고 밝힘.

에너지 업종에서는 발레로 에너지(+5.21%), 매러션 페트롤리엄(+2.86%)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으며 셰브론(+0.47%)은 전일 트럼프 대통령이 석유 기업들의 휘발유 판매 가격 인하를 압박한 가운데 이날 CNBC 인터뷰를 통해 '원유 가격 하락이 휘발유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밝힘.

지표 결과가 대체로 양호했던 가운데 JP모간체이스(+0.50%), 뱅크오브아메리카(+0.80%), 씨티그룹(+0.97%) 등 금융주도 대체로 상승. 금융주는 전일 마감 이후 연준이 대형 은행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32개 은행 모두 상당한 체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던 것도 재무 건전성에 대한 신뢰와 스트레스 테스트 이후 자사주 매입 재개 가능성에 대한 기대 등으로 이어져 강세 요인이 됨

비트코인 6만 달러 이탈 후 추가 하락

비트코인 가격이 58,000달러 하회를 목전에 두는 등 전일 6만달러 이탈 후 추가 하락. 지난 2024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비트코인 뿐 아니라 가상자산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도 3% 내외 하락세를 유지. 최근 달러 강세가 암호화폐 하락 요인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지만 이날은 달러 강세가 주춤했음에도 암호화폐 가격 하락은 지속됨. 기술적 지지선 하향 돌파에 따른 알고리즘 매도와 마진 콜이 가중돼 이렇다 할 반등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임.

관련 종목도 동반 약세. 스트래티지(-9.35%), 어플라이드 디지털(-2.45%), 아이렌(-5.09%), 사이퍼 마이닝(-2.06%), 클린스파크(-2.22%), 비타민 이머전 테놀로지스(-4.99%), 코인베이스 글로벌(-5.06%), 로빈훗 마케츠(-3.83%), 서클 인터넷 그룹(-3.06%) 등.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국제유가 5일만에 반등

국제유가는 WTI 기준 5거래일만에 반등. 단기 낙폭이 적지 않았던데 따른 되돌림이 일부 작용했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선박이 피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도 유가 반등에 힘을 실음.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익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싱가포르 국적 화물선을 공격했다며 이는 미국과 이란이 지난주 맺었던 종전 합의를 시험하는 행위라고 지적함.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2.25% 상승한 배럴당 71.92달러에 마감했고 브렌트유 8월물은 1.29% 상승한 배럴당 75.26달러에 마감.

국제 금 가격은 5거래일만에 반등. 이날 발표된 PCE 가격지수가 예상 범위 안에서 발표되며 안도감을 반영하는 모습으로 시카고파생상품거래소그룹(CME) 산하 금속 선물 거래소 COMEX에서 8월 인도분 금 선물은 0.93% 상승한 트로이 온스 당 4,046.2달러를 기록. 7월 인도분 은 선물 가격도 58달러 초반대에서 강보합.

국채금리 혼조

미 국채 금리는 전일의 큰 폭 하락에서 벗어나 혼조세를 보임. 이날 발표된 미국의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예상 범위 안에 머물러 여전히 높은 물가 수준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금리 상승 요인은 되지 않음. 지표 발표 이후 국채 금리는 모든 구간에서 크게 하락함. 다만 국제유가가 상승 반전하면서 국채 금리 추가 하락을 저지했고 일부 반등하기도 했음. 이날 미 재무부가 실시한 7년물 국채 발행은 지난 입찰 때에 비해 발행 수익률이 3bp 하락하는 등 무난하게 마무리됨.

통화정책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2년물 국채 금리는 2.3bp 하락한 4.1229%를 기록했고 벤치마크인 10년물 금리는 전일과 같은 수준 4.3922%대에 머무름. 만기가 가장 긴 30년물 국채 금리는 2.2bp 상승한 4.8611%를 기록. 10년물과 2년물간 금리 차이는 26.93bp로 2.27bp 다시 확대됨.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오는 12월까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19% 후반 수준으로 전장 대비 높여 반영했으며, 연내 한 번 인상할 가능성을 40%, 두 번 인상할 가능성을 30% 내외로 반영. 세 번 이상 인상할 가능성도 10%내외로 집계됨.

달러 가치 6일만에 하락

미 달러화 가치는 6거래일만에 하락함. 연준이 주목하는 PCE 물가 지수가 대체로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발표되자 하락한 국채금리와 함께 달러도 약세 전환함.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0.17% 하락한 101.438을 기록. 장 중 101.3선까지 하락하기도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물선에 대한 공격이 있었다는 소식에 국제 유가가 반등하자 달러 인덱스 낙폭도 축소됨.

달러/엔 환율은 여전히 162엔대를 위협하는 흐름으로 161.9엔대를 넘어서기도 했음.

전일 서울 외환시장 주간거래에서 1,542.70원에 마감한 달러-원 환율은 야간거래에서 0.40원 상승한 1,543.10원에 마감.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최근 1개월물 스와프포인트(-0.75원)를 감안하면 전장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증가 대비 2.65원 상승한 1,544.60원에 마감.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